

법 어

강창일 의원님의 정각회장 취임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역임하고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하고 유익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이 귀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각회 부회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불자모임인 연등회 회장을 맡아 크나큰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 종단과 불자들은 축하의 마음과 더불어 정각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렵고 지중한 시기에 정각회장을 맡아 국가와 불교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신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뜻 깊은 이 자리에서 19대 하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모든 불자들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정각회 의원들께서 여야를 넘어서는 원력으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 신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뢰가 있는 사회는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작은 위기만 와도 태풍을 만난 배처럼 견잡을 수 없이 요동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공동체는 어떠한 위협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해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사회, 앞사람들이 정한 규칙과 법률을 깨뜨리지 않고 중시하며 함부로 고치지 않는 나라는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까지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러나 조급하고 상대방을 완력으로 제압하려는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심각한 세대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격량은 점점 커지고 우리가 탄 배는 더욱 작아져만 갑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신뢰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질시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미 감정의 선을 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위중하고 다급함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로 하여금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너무도 고마운 관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치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각회의 역할입니다. 적극적인 불자로서의 모습도 기대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각회를 통해 전법과 포교, 보살행의 실천으로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신뢰의 위기에 대한 해법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항상 여러 종단을 비롯한 불교계는 여러분께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는 살기 좋은 나라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길에 부처님의 한없는 가피가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7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